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가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의 매개효과*

박산울** · 이수정***

국 | 문 | 요 | 약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환경적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이 어떠한 경로로 학교폭력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가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을 거쳐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BS 학교폭력진단검사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 2,473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2,10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 지위비행, 폭력둔감성, 학교폭력 가해 간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지위비행이 증가할수록 폭력둔감성이 증가하였으며, 폭력둔감성이 증가할수록 학교폭력 가해 또한 증가하였다. 셋째,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와 폭력둔감성 간 관계를 지위비행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기능, 학급분위기, 지위비행은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폭력둔감성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가족 및 학급에 대한 개입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방안과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3.12.31.4.1>.

❖ 주제어 :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진단검사, 가족기능, 학급분위기, 지위비행, 폭력둔감성, 경로분석

* 본 논문은 저자의 경기대학교 2023년 석사학위논문을 토대로 수정·보완됨.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석사과정, 주저자.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교신저자.

I. 서론

2022년과 2023년,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비슷한 시기 정순신 변호사가 이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하는 일이 벌어지며 학교폭력이 또다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태국에서는 ‘The Glory Thai’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학교폭력을 고발하는 사회적 현상이 벌어졌고, 국내에서도 한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지에서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이토록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것은 드라마에서 다뤄진 것과 같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학교폭력에 의해 만성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동은 신체적·심리적 고통, 집중의 어려움, 학교 공포증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는 물론이고(Bernstein & Watson, 1997), 더 심각한 우울증이나, 또래들보다 더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는 것과 같은 장기적 문제 또한 경험할 수 있다(Olweus, 1993). 그중에서도 초기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폄하하고, 거부하는 또래로부터 특히 심리적 피해를 입기 쉽다(Rigby, 1999).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가해는 2020년 0.7%, 2021년 0.9%, 2022년 1.3%로 나타났고, 피해는 2020년 1.8%, 2021년 2.5%, 2022년 3.8%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가 피해는 중·고등학생과 다르게 근래 들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학교폭력의 저연령화를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내에서 초등학교생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게 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연구 참가자를 초등학교생으로 한정하였다.

한편, 학교폭력의 부정적 영향은 비단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역시 학교폭력에 가담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학교폭력 가해 아동은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힘을 행사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 약물 남용과 같은 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더 높고(Eron et al., 1987; Farrington, 1993; Ross, 1996), 자신의 가해 행동을 인정하는 경우 우울증과 심리적 고통 또한 증

가한다(Vanderbilt & Augustyn, 2010). 이처럼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학교폭력 장면에는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중 한 가지만을 경험하지 않고 가해와 피해를 중복으로 경험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가해와 피해의 중첩에 대해 Del Rey 등(2012)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보다 피해자가 추후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심지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와 동일한 수단으로 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Cuadrado-Gordillo & Fernández-Antelo, 2014). 이렇게 가해에서 피해로, 피해에서 가해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의 연속성을 끊고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겹게 되는 여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예방적 개입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족기능은 청소년기 문제 행동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고, 학급분위기는 여러 문헌에서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학급 환경과 학급 내 또래 관계를 포괄한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사회환경적 접근은 청소년 폭력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가정, 학교, 친구, 폭력매체 노출과 같은 맥락과 환경적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폭력행동이 발견되기까지의 심리 기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이은희 등, 2004). 김준호 등(1997)은 환경적 요소가 폭력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이어지기보다 폭력을 선호하는 생활방식을 채택하도록 하는 매개적 작용을 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위비행 경험과 폭력둔감성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고, 부정적인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 그리고 지위비행이 학생이 폭력적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폭력둔감성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부정적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지위비행 경험을 증가시키고 폭력에 둔감하게 만듦으로써 학교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개입 방안의 수립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빈번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가족의 기능적인 문제를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들은 공통적으로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즉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녀의 비행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김준호 등, 2002).

가족기능의 문제가 학교폭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가정폭력을 비롯한 폭력적인 가족환경(Holt et al., 2008; 조춘범, 조남홍, 2011)과, 방임(이복실, 2007; 임구원, 2015)을 비롯한 아동 학대(Fisher et al., 2015; Shields & Cicchetti, 2001; 김지영, 박은예, 2013; 오정아, 김정은, 2013) 등 아동에 대한 직접적 폭력을 포함하는 가족 내 폭력적 분위기는 학교폭력 가해에 대해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와 함께 가족 간 유대 또한 학교폭력 가해의 원인으로 고려된다. 가족에 대한 유대와 청소년의 폭력 간 관련성은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에 기반하여 이해할 수 있다.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와 맺는 유대가 비행을 억제하는데, 특히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비행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이때 애착은 감독, 의사소통, 동일시로 구분되는데, 부모의 감독(Marini et al., 2006)과 직접적인 규제(Idsoe et al., 2008) 모두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은영과 김경신(2014)은 인간 발달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기반하여 부모와의 관계, 가족 간 의사소통이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Troy와 Sroufe(1987)는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자녀는 다른 사람을 괴롭힐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Mann 등(2015)은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고, 부모의 지지가 낮을수록 학교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보호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연루될 가능성

도 작지만, 불안정한 애착은 학교폭력을 예측하고(Murphy et al., 2017), 또래 갈등과 거부를 초래하여 학교에서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진다(Hong & Espelage, 2012).

2. 학급분위기

학급분위기는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하게 정의된다. Raskauskas 등(2010)은 학급분위기 측정에 학교 연결성, 학생-교사 관계, 학생-또래 관계 관련 문항이 포함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Pryce와 Frederickson(2013)은 학급분위기를 응집성, 학급 내 갈등, 수업에의 어려움, 만족도를 포함하는 교실 환경에 대한 학생의 인식으로 보았다. 이처럼 학급분위기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며, 단일한 정의 없이 다양한 이론적 틀들을 중첩적으로, 때로는 상충적으로 사용한다(Wang & Degol,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급의 폭력에 대한 태도, 학급 내 갈등, 학급 규범, 응집성 등의 요소를 모두 망라하고자 학급분위기를 변수명으로 사용하였다. 학급은 학교 내에서 학생과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 학급의 전반적 태도와 학급응집성, 학급 내의 또래관계 등 학급 관련 요인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또래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에 압력을 가하는 결과를 낳는 학급의 요소 중 하나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급 규범이다. Ettekal 등(2015)은 학교폭력 및 방관 행동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신념 혹은 판단에 대한 ‘집단적 학교폭력 태도’,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에게 기대되는 일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반영하는 ‘명령적 규범’, 아동의 실제 행동적 반응과 집단 내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행동이 존재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서술적 규범’, 더 큰 또래 집단이 도덕적으로 무관심하고 학교폭력을 제재한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집단적 도덕적 무관심’의 네 유형의 또래 집단 규범들이 공존하며 학교폭력 및 방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학급 규범 중 학교폭력 태도와 관련하여 Salmivalli와 Voeten(2004)의 연구는 학급이 학교폭력을 반대하는 태도를 더 강력하게 지지할 경우 학생들이 피해자를 옹호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행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방지 태도 점수가 낮은 학급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Saarento et al., 2013), 김정집(2005)은 교내의 환경이 폭력에 대해 허용적이고 동조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 자신의 태도와 무관하게 폭력에 허용적인 가치의 영향으로 폭력에 가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폭력의 측면에서 명령적 규범은 학교폭력 상황 목격 시 학급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래의 기대를 반영하며, 이는 특히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집단 규범적 압력으로 개념화된다(Pozzoli et al., 2012). Pozzoli와 Gini(2010)의 연구에서는 또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 청소년이 학교폭력에 더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적 규범은 간단하게 학급 내에서 학교폭력 행동이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Sentse 등(2007)은 학교폭력이 규범적으로 발생하는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또래 거부보다 또래 선호와 관련이 더 높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학교폭력 장면에서 집단적 도덕적 무관심은 청소년이 집단으로 도덕적 이탈을 실천하는 경우에 학교폭력 행동에 뚜렷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집단 규범으로 해석될 수 있다(Ettekal et al., 2015). Gini 등(2014)은 학급 구성원들이 도덕적으로 무관심하다고 인식할 때 아동이 자신의 도덕적 무관심 수준을 넘어 공격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급응집성 또한 학급 규범과 별개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황혜원 등, 2006). 학급응집성은 학급구성원이 학급집단에 갖는 감정과 느낌을 일컫는 말로, 개인과 학급집단 전체와의 관계를 강조한다(Schmuck & Schmuck, 1992). 이훈구 등(2000)의 연구에서도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학급이 일반 학급과 비교해 응집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3. 지위비행

지위비행이란 비행의 세부 분류로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뜻하는 범죄적 비행(index offenses)과 다르게,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지위를 고려할 때 사회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일컫는다. 즉,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광의적인 차원에서 성인이 되어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의 신분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정의되며(김미선, 2014), 무단결석, 음주, 가출, 음란물 접촉 등을 포함한다.

지위비행은 여러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기능 장애(Voorhis et al., 1988), 가정폭력(김혜래, 이혜원, 2007), 가족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Clark & Shields, 1997), 가정 수준의 부모관계와 학교 수준의 교우관계(이현철 등, 2016), 또래 집단과의 관계(김중근, 2018), 학교생활(임희연 등, 2023)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비롯한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며, 부모의 감독 부족을 비행행동의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Loeber & Stouthamer-Loeber).

지위비행은 학교폭력 가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음주 및 흡연(Berthold & Hoover, 2000)과 같은 자기파괴적 행위에 가담하는 경향이 컸다. 김재엽과 이근영(2010)의 연구에서도 음주와 흡연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Haynie 등(2001)의 연구 역시 마찬가지로 음주 및 흡연과 같은 문제 행동 및 무단 결석, 위험한 장소에 방문하기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문제 행동 모두 학교폭력 가해와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비행 경험이 이후의 폭력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폭력 노출이 폭력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폭력에 대한 정서적 둔감화가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Mrug & Windle, 2013). Chen 등(2016)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비행이 폭력에 대한 둔감화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폭력 노출과 연관된다고 주장하였고, 이춘화(1995)의 연구에서는 흡연과 음주 여부로 측정된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폭력에 대해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위비행이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고, 나이가 폭력둔감성을 매개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4. 폭력둔감성

둔감화(desensitization)란 특정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이에 대한 생리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반응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Rule & Ferguson, 1986). 폭력에 대한 둔감화는 후속 폭력 행동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제안되었다(Mrug et al., 2008).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데서 비롯된 폭력에 대한 둔감화는 정서적 반응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서적 둔감화를 초래하고(Funk et al., 2004), 더불어 폭력이 불가피하고 일상적이라는 생각을 강조함으로써 인지적 둔감화를 야기하여 폭력을 검열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Galán Jiménez et al., 2019). 일반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면 유발되는 강한 부정적 반응이 폭력적 행동의 실행을 억제해야 하는데,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부정적 반응이 습관화를 통해 감소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덜 억제한다는 것이다(Bradshaw et al., 2009).

Farrel과 Bruce(1997)는 만성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가 폭력에 둔감해지고, 이로 인해 공격성이 증가함을 시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만성적인 폭력 노출로 인한 둔감화의 영향은 크게 가정과 지역사회 내 폭력 장면으로 나뉘어 연구되어왔다. 김재엽 등(2008)은 가정에서의 폭력 노출 경험이 모방이나 관찰이라는 학습 과정을 통해 폭력 행동의 결과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며 폭력에 대하여 용인하는 태도를 내면에 형성한다고 밝혔다. Esposito 등(2022)은 지역사회 내에서 반복되는 폭력 경험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폭력을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규범적이고 정당한 전략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공격적 행동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더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폭력에 대해 도덕적으로 무관심한 신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비교적 컸으며, 나이가 학교폭력에도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종단적 연구는 여러 맥락에서 경험한 폭력이 폭력에 대한 둔감화로 이어지며, 이는 청소년기 후반의 더욱 폭력적인 행동과 연결됨을 확인한 바 있다(Mrug et al.,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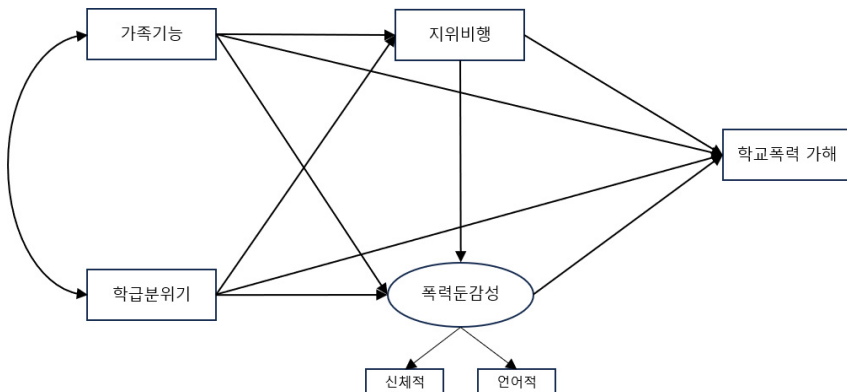
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 폭력과 공격성이 드물고 가능성이 낮은 행동이라는 믿음에서 폭력이 일상적이고 평범하며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신념이 바뀌기도 하는 과정은 인지적 둔감화라고 칭할 수 있는데, 인지적 둔감화는 폭력적인 신념을 더 수용하고 공격적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더 긍정적으로 하거나 사회 및 개인의 도덕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을 더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는다(Huesmann & Kirwil,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가족 및 학급 환경과 지위 비행이 폭력노출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폭력둔감성을 높임으로써 학교폭력 가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가설 및 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하여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종속변인인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에서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여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 기능과 학급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지위비행이 증가하며, 가족기능 및 학급분위기와 지위비행이 모두 폭력둔감성을 매개하여 최종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인인 학급분위기와 가족기능이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을 매개하여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폭력둔감성의 경우 언어적 폭력둔감성과 신체적 폭력둔감성을 폭력둔감성이라는 하나의 잠재변수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2.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EBS 학교폭력진단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과정에서 수집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 2,473명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EBS에서 전국 초등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검사를 소개한 뒤 학교 단위로 신청을 받아 모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2,473명의 데이터 중 종속변인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묻는 문항에 미응답한 371명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2,102명의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10세에서 13세, 평균 연령은 11.88세($SD=0.85$)였고, 전국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나 경기도, 전라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총 9개 초등학교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 중 남성은 1,320명(62.8%), 여성은 782명(37.2%)이었다. 학년은 3학년이 117명(5.6%)으로 가장 적었고, 5학년이 904명(43.0%)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은 550명(26.2%), 6학년은 531명(25.3%)으로 비슷하게 모집되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분류되는 5학년, 6학년이 1,435명(68.3%)으로 중학년으로 분류되는 3학년과 4학년(667명, 31.7%)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1,068명(50.8%)로 가장 참가자 수가 많았고, 부산광역시는 609명(29.0%), 울산광역시 311명(14.8%)으로 적지 않은 수가 모집되었으나, 광주광역시와 전라도가 각각 70명(3.3%), 44명(2.1%)으로 그 수가 비교적 적었다. 다만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그 외 다른 지역들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수도권이 1,068명(50.8%), 비수도권이 1,034명(49.2%)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참가자 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및 매개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EBS 학교폭력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EBS 학교폭력진단검사는 학생의 정서적 상태와 폭력 위험성을 평가하고, 학교폭력 문제 유형에 적합한 지도·접근 유형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이수정, 정혜정, 남궁혜정, 2023).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응답한다.

본 연구는 EBS 학교폭력진단검사의 초등용 검사지 중 일부 척도들만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먼저, 독립변인인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 측정을 위하여 해당 검사의 외부 요인 척도들 중 가족요인과 학급요인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요인 척도는 “우리 가족은 같이 식사한다.”와 같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 의사소통, 물리적 시간 공유 등 가족의 기능을 묻는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자신의 가족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 측정에 사용한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alpha=.65$ 로 나타났다.

학급요인 척도는 “우리 반 아이들은 서로 놀리거나 욕을 많이 한다.”와 같이 학급 내 폭력 노출, 학급 내 폭력에 대한 허용 수준, 학급에서 느끼는 안전감, 응집성 등 학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평가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는 자신이 속한 학급이 안전하며 폭력에 대해 배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학급분위기 측정에 사용한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alpha=.60$ 이었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지위비행의 측정에는 EBS 학교폭력진단검사의 초등용 문항의 폭력위험성 척도에 속하는 비행경험 척도를 사용하되, 학생 신분에서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의 여부만을 확인하고자 해당 척도의 문항 중 성인의 신분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위와 관련된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지위비행은 무단결석, 음주, 기출, 음란물 접촉 경험을 묻는 총 4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지위비행 측정에 사용한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50$ 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 척도의 문항 수가 4개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신뢰도 계수를 수용하였다.

폭력둔감성은 EBS 학교폭력진단검사의 폭력위험성 척도 중 폭력둔감성(신체) 척도와 폭력둔감성(언어) 척도를 잠재변수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두 척도 모두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에 대한 민감성 수준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폭력둔감성(신체)의 경우 “장난이라면 친구를 때려도 괜찮다”, 폭력둔감성(언어)의 경우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것은 괜찮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척도들의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둔감해졌음을 의미하며, 폭력을 민감

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폭력둔감성(신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alpha=.72$, 폭력둔감성(언어) 척도의 내적일관성은 Cronbach's $\alpha=.70$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학교폭력 가해는 신체적 공격에 해당되는 폭행과 관계적 공격에 해당되는 따돌림의 가해 여부를 묻는 2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앞선 척도들과 마찬가지로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에 더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아울러 연구자의 목적이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가 아닌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추정하는 데에 있는 경우 문항의 묶음으로 모형이 구성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선행연구의 견해(Little et al., 2013; Matsunaga, 2008)를 참고하여, 단일차원으로 구성개념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연구에 사용된 모든 척도의 점수를 각 척도에 포함되는 문항 점수의 총합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별 내적일관성 검증,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전체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에는 SPSS 23.0을 사용하였고, 앞서 수립한 가설을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에는 AMOS 26.0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에 대한 응답경향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점수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 관련성은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활용한 상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설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설정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모형에 포함된 개별 경로의 회귀계수를 산출하였다. 적합도 지수로는 카이제곱 값과 표본 크기에 덜 민감한 것으로 알려진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후, 가장 좋은 모형을 찾기 위해 연구

모형에 포함된 경로 중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하여 수정 모형을 구성하였고, 수정 모형의 적합도와 처음에 설정한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형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한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유의도를 검증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1. 가족기능		1					
2. 학급분위기		.241**	1				
3. 지위비행		-.247**	-.345**	1			
폭력둔감성	4. 신체	-.274**	-.427**	.439**	1		
	5. 언어	-.292**	-.432**	.426**	.670**	1	
6. 학교폭력 가해		-.118**	-.188**	.191**	.333**	.298**	1
M		11.05	18.60	5.26	6.59	7.50	2.70
SD		2.61	2.888	1.585	2.199	2.385	0.854

**p <.01

2. 모형 분석

가. 연구 모형의 적합도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검증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χ^2 은 5.694(df=3, p=.128)로 p값이 .05보다 크고,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1.898로 절대값 2보다 작아 연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 역시 CFI가 .999, TLI가 .995로 .95보다 큰 값을 가졌고, RMSEA는 .021로 .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2>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5,694	3	1,898	.999	.995	.021

나.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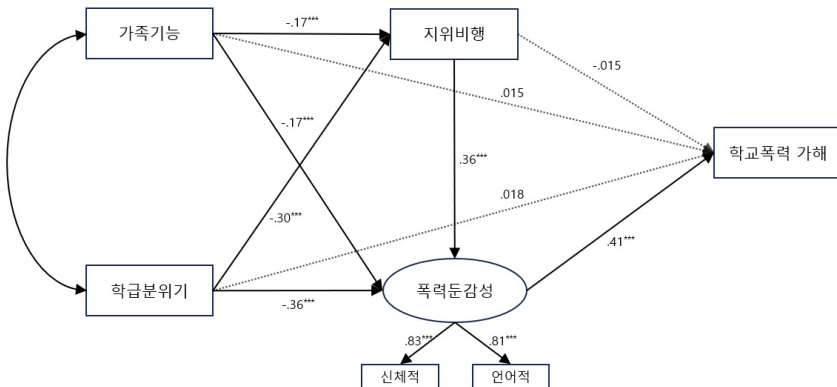
연구 모형에 포함된 각 경로의 분석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로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기능과 학교폭력 가해 간의 직접경로, 학급분위기와 학교폭력 가해 간 직접경로, 지위비행과 학교폭력 가해 간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폭력둔감성 변인만이 학교폭력 가해로 향하는 직접경로($\beta=.409$,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변인들은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폭력둔감성만이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폭력둔감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path		B	β	S.E.	T-value
가족기능	→ 지위비행	-.105	-.174	.015	-8.375***
	→ 폭력둔감성	-.117	-.168	.014	-8.147***
	→ 학교폭력 가해	.005	.015	.007	.678
학급분위기	→ 지위비행	-.166	-.303	.011	-14.613***
	→ 폭력둔감성	-.226	-.358	.014	-16.415***
	→ 학교폭력 가해	.005	.018	.007	.710
지위비행	→ 폭력둔감성	.417	.363	.025	16.615***
	→ 학교폭력 가해	-.008	-.015	.014	-.582
폭력둔감성	→ 학교폭력 가해	.192	.409	.016	11.925***

***p <.001

[그림 2] 연구 모형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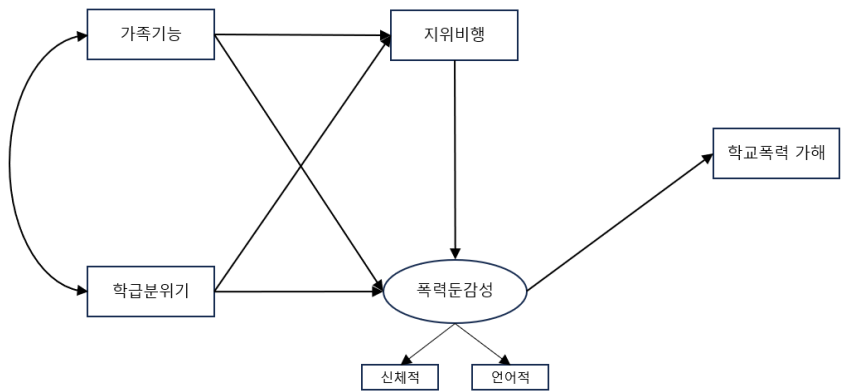


다. 수정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에 유의하지 않은 경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모두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기존 연구 모형의 가설이 일부 기각되었음을 의미하며, 모형이 비교적 간명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개별 경로를 제거하여 더욱 간명한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구성된 수정 모형은 [그림 3]과 같고, 기존 연구 모형과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수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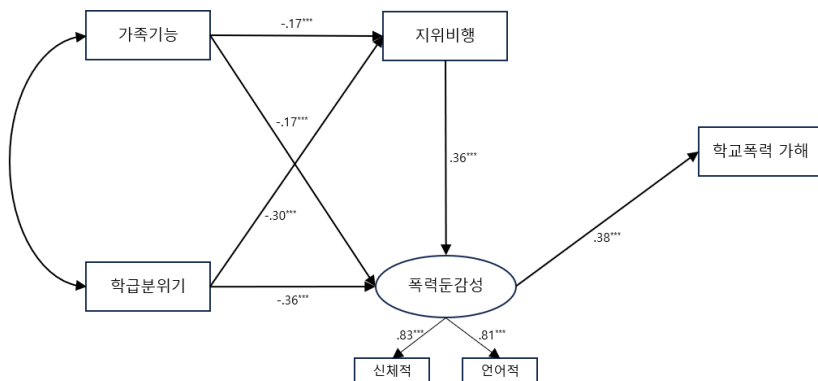
<표 4> 연구 모형과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f	χ^2/df	CFI	TLI	RMSEA	AIC
연구모형	5,694	3	1,898	.999	.995	.021	53,694
수정모형	7,056	6	1,176	.999	.999	.009	49,056

수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은 7.056(df=6, p=.316)으로 유의확률이 .05보다 높았고, 표준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1.176으로 절대값 2보다 작아 연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수 또한 CFI와 TLI 모두 .999로 .95보다 큰 값을 가졌고, RMSEA는 .009로 .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과 마찬가지로 수정 모형 역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수정 모형은 연구 모형에 비해 표준카이제곱 값과 RMSEA가 감소하고, TLI가 증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형 비교를 위해 AIC 지수를 함께 살펴 보았다. AIC 값은 낮을수록 더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연구 모형과 수정 모형의 AIC 값을 비교한 결과 수정 모형이 연구 모형에 비해 AIC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간명한 모형인 수정 모형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정 모형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최종 모형 및 경로계수



라. 최종 모형의 효과분해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의 매개효과 및 최종적으로 결정된 모형의 경로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한 효과분해를 실시하였다. 직·간접효과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최종 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들의 직·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폭력둔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위비행이 부분매개하고, 지위비행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폭력둔감성이 완전매개함을 의미한다. 즉, 연구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이 매개함을 시사하였다.

〈표 5〉 최종 모형의 효과분해 결과

path		effect	B	β	S.E.	95% CI	
						lower	upper
가족기능	→지위비행	직접효과	-.105***	-.174	.013	-.131	-.080
	→폭력둔감성	직접효과	-.116***	-.167	.015	-.147	-.087
		간접효과	-.044***	-.063	.006	-.056	-.033
	→학교폭력 가해	간접효과	-.029***	-.088	.003	-.035	-.023
학급분위기	→지위비행	직접효과	-.166***	-.303	.012	-.191	-.141
	→폭력둔감성	직접효과	-.225***	-.357	.014	-.253	-.197
		간접효과	-.069***	-.110	.007	-.083	-.057
	→학교폭력 가해	간접효과	-.053***	-.178	.004	-.060	-.045
지위비행	→폭력둔감성	직접효과	.416***	.363	.027	.363	.470
	→학교폭력 가해	간접효과	.075***	.138	.006	.063	.087
폭력둔감성	→학교폭력 가해	직접효과	.179***	.382	.010	.160	.200

***p <.001

V. 결 론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부정적일수록 지위비행이 증가하였다. 가족기능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선행연구에서도 꾸준히 보고된 바 있다. 일례로, 김준호 등(2002)은 가족이 규범과 정서적 안정의 제공에 실패하는 경우 지위비행의 발생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급분위기가 지위비행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가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급 내에서의 호의적인 사회적 관계를 비롯한 학급 분위기가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Sprott(2004)의 연구와 궤를 같이한다.

둘째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부정적인 경우 지위비행이 증가하며,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부정적이고 지위비행이 증가하는 경우 폭력둔감성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이때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폭력둔감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지위비행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land(1996)는 폭력적인 환경에서 사는 아동들은 폭력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용인되는 수단이라는 것을 배운다고 주장하였고, Mrug 등(2016)은

여러 맥락에서 경험한 폭력이 폭력에 대해 둔감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는데, 부정적 가족기능과 부정적 학급분위기, 이에 따른 빈번한 지위비행이 폭력둔감성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요인들이 청소년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가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이 매개변인으로 기능하였는데, 이때 지위비행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폭력둔감성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는 다소 상이하게 가족기능, 학급분위기, 지위비행은 학교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폭력둔감성을 매개하는 경우에만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적인 가족기능과 부정적인 학급분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지위비행 경험이 비교적 많다고 하더라도 폭력에 둔감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폭력둔감성이라는 매개변인은 학교폭력 가해를 일으키는 데에 매우 직접적이고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활발히 연구되지 않은 폭력둔감성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라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을 거쳐 학교폭력 가해에 이르는 경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가족기능, 학급분위기, 지위비행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폭력둔감성이 완전매개하였다는 점은 눈여겨볼 직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가해로 향하는 경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폭력둔감성에 대한 개입이 학교폭력 예방에 특히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둔감성을 완충하는 요인으로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강조하고, 피해자를 향한 공감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학교폭력의 종류에 대해 지속해서 주지시켜 학교폭력을 장난이 아닌 폭력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있게끔 접근하는 것 또한 폭력에 민감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들의 폭력 노출 경험을 줄임으로써 폭력에 대한 둔감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학교폭력의 예방에 있어서 가족과 학급의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이다. 폭력둔감성만큼 결정적인 요인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지위비행과 폭력둔감

성에 차례로 영향을 미쳐 결국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의 회복은 학교폭력 가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안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인이 단순히 가정 및 학급 장면에서의 폭력에 대한 노출 경험인 아닌 가족기능과 학급분위기임을 고려하면, 가족 구성원, 교사 및 학급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나 가족과 학급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모두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폭력에 대한 둔감화에 따른 공격적 행동을 폭력적인 미디어 혹은 지역사회 폭력 노출과 관련하여서만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결과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비슷한 결과가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도출되는지, 혹은 비단 학교폭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범죄 장면의 범죄 행동 발달 궤적에 있어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남녀 학생 참가자를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학년, 지역 및 여성의 표본이 적고, 몇몇 지역이 누락된 점, 표본 추출 방식이 학교의 자율적인 신청으로만 진행된 점으로 인해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문제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체적 폭력인 폭행과 관계적 폭력인 따돌림 점수를 합산하였다. 하지만 Wang 등(2009)는 남학생은 신체적 또는 언어적 학교폭력에 더 많이 가담하는 반면, 여학생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형태의 학교폭력에 가담한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관계적으로 공격적이며(Crick & Grotpeter, 1995), 관계적 피해를 더 많이 입는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Nixon et al., 2011). 본 연구에서 합산하여 사용한 학교폭력 가해 측정 문항은 각각 남학생에게서 우세한 학교폭력 유형과 여학생에게서 우세한 학교폭력 유형으로, 각 학교폭력 가해 유형별 발달경로와 성차를 살펴볼 수는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성별과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행동의 경로를

성별과 각 폭력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보거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변인으로 추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가죽기능과 학급분위기가 지위비행과 폭력둔감성을 거쳐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시간적 선후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부정적 가죽기능과 학급분위기, 빈번한 지위비행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폭력에 더욱 둔감하게 만든다는 인과적인 가설을 엄격하게 증명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가 향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추가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서 피해와 가해를 중복해서 경험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국내의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가해 경험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학생 중 38.4%가 피해 경험도 함께 보고하였다(김혜자 등, 2021). 매우 심각하지 않은 범죄의 피해자는 둔감화로 인해 피해자가 아닌 사람보다 범죄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반응이 적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Di Tella et al., 2019),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 또한 폭력에 대한 둔감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변인으로 추가하여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은 절대 적지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학교폭력의 예방보다도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벌과 대책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는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경험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폭력의 대책은 엄중한 처벌보다도 학교폭력의 예방을 우선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와 같이 학교폭력 발생 기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가 향후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구 결과가 단순한 연구 결과로만 그치지 않고 정책적 관심과 논의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정집. (2005). 초기 청소년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학교환경과 학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1), 421-448.
- 김미선. (2014).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재엽, 이근영. (2010).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2), 53-74.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6, 31-59.
- 김준호, 박정신, 김은경. (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안호용, 김선애, 김선업. (2002). 가족의 구조와 기능과 청소년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3(1), 225-267.
- 김중곤. (2018). 청소년의 비행 발달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분석. 청소년학 연구, 25(1), 259-287.
- 김지영, 박은예. (2013). 부모의 학대와 중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행동간 관계: 자기통제력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0(9), 25-49.
- 김혜래, 이혜원. (2007). 학교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비행과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23, 33-63.
- 김혜자, 금종예, 박미리, 최은지, 유효성, 이은주. (2021).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 박은영, 김경신.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의 영향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3), 91-118.
- 오정아, 김정운. (2013). 학교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글로벌청소년학연구, 3(1), 25-48.
- 이복실. (2007). 중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공격성, 학교폭력경험 및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13, 25-50.

- 이수정, 정혜정, 남궁혜정. (2023). 학교폭력진단검사. 서울: EBS미디어.
-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 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 이춘화. (1995).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현철, 김경식, 최성보. (2016). 한국 청소년의 지위비행·범죄행위에 대한 중단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4(2), 125-147.
- 이훈구, 권준모, 곽금주, 김범준, 홍영오. (2000). 학원폭력 예방프로그램 연구 보고서.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 임구원. (2015).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교정복지연구, 37, 121-139.
- 임희연, 정일환, 문상호 (2023). 청소년 비행의 영향 요인 분석: 학교생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3(1), 111-134.
- 조춘범, 조남홍. (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 청소년학연구, 18(4), 75-102.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황혜원, 박현순, 신정아. (2006).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생태체계적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아동과 권리, 10(4), 497-526.

[외국문헌]

- Beland, K. R. (1996). A school-wide approach to violence prevention. In R. L. Hampton, P. Jenkins, & T. P. Gullotta (Eds.), Preventing violence in America (pp.209-231). Thousand Oaks, CA: Sage.
- Bernstein, J. Y., & Watson, M. W. (1997).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483-498.
- Berthold, K. A., & Hoover, J. H. (2000). Correlates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among intermediate student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1(1), 65-78.

- Bradshaw, C. P., Rodgers, C. R. R., Ghandour, L. A., & Garbarino, J. (2009). Social-cognitive medi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nd aggressive behavior.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4(3), 199-210.
- Bradshaw, C. P., Rodgers, C. R., Ghandour, L. A., & Garbarino, J. (2009). Social-cognitive medi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nd aggressive behavior.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4(3), 199.
-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7), 513.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hen, P., Voisin, D. R., & Jacobson, K. C. (2016).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nd adolescent delinquency: Examining a spectrum of promotive factors. *Youth & Society*, 48(1), 33-57.
- Clark, R. D., & Shields, G. (1997). Family communication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2(125), 81-93.
- Craven, R., & Parada, R. (2002). Beyond Bullying Secondary Schools Program: Consultant's handbook. Publication Unit, Self-concept Enhancement and Learning Facilitation (SELF)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Nelson, D. A., Morales, J. R., Cullerton-Sen, C., Casas, J. F., & Hickman, S. E. (2001). Relational victimis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I hurt you through the grapevine. In J. Juvonen, A. Nishina,

-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pp.196-214). New York: Guilford.
- Cuadrado-Gordillo, I., & Fernández-Antelo, I. (2014). Cyberspace as a generator of changes in the aggressive-victim rol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6, 225-233.
- del Rey, R., Elipe, P., & Ortega-Ruiz, R. (2012). Bullying and cyberbullying: overlapping and predictive value of the co-occurrence. *Psicothema*, 24(4), 608-613.
- Di Tella, R., Freira, L., Gálvez, R. H., Schargrodsky, E., Shalom, D., & Sigman, M. (2019). Crime and violence: Desensitization in victims to watching criminal event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59, 613-625.
- Eron, L. D., Huesmann, L. R., Dubow, E., Romanoff, R., & Yarmel, P. W. (1987). Aggression and its correlates over 22 years. *Childhood aggression and violence: Sources of influence, prevention and control*, 249-262.
- Esposito, C., Spadari, E. M., Caravita, S. C. S., & Bacchini, D. (2022). Profiles of Community Violence Exposure, Moral Disengagement, and Bullying Perpetration: Evidence from a Sample of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9-10), 5887-5913.
- Ettekal, I., Kochenderfer-Ladd, B., & Ladd, G. W. (2015). A synthesis of person- and relational-level factors that influence bullying and bystanding behaviors: Toward an integrative framework.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3, 75-86.
- Farrell, A. D., & Bruce, S. E. (1997). Impact of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on violent behavior and emotional distress among urban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6(1), 2-14.
- Farrington, D. P. (1993).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bullying. *Crime and justice*, 17, 381-458.

- Fisher, H. L., Caspi, A., Moffitt, T. E., Wertz, J., Gray, R., Newbury, J., Ambler, A., Zavos, H., Danese, A., Mill, J., Odgers C.L., Pariante, C., Wong, C.C., & Arseneault, L. (2015). Measuring adolescents' exposure to victimization: the environmental risk (E-Risk) longitudinal twin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4pt2), 1399-1416.
- Galán Jiménez, J. S. F., Sánchez-Armáss Cappello, O., & García y Barragán, L. F. (2019).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Desensitization to Violence Scale for Adolescents. *Nova scientia*, 11(22), 274-292.
- Gini, G., Pozzoli, T., & Bussey, K. (2015). The role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moral disengagement in peer aggression and bystanding: A multileve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3, 441-452.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ynie, D. L. (2001). Delinquent peers revisited: Does network structure matt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4), 1013-1057.
- Haynie, D. L., Nansel, T., Eitel, P., Crump, A. D., Saylor, K., Yu, K., & Simons-Morton, B. (2001).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Distinct Groups of At-Risk Youth.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29-49.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lt, M. K., Kaufman Kantor, G., & Finkelhor, D. (2008). Parent/child concordance about bullying involvement and family characteristics related to bullying and peer victimization. *Journal of school violence*, 8(1), 42-63.
- Hong, J. S., & Espelage, D. L. (2012). A review of research on bullying and peer victimization in school: An ecological system 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4), 311-322.
- Hooper, Daire & Coughlan, Joseph & Mullen, Michael. (2007). *Structural*

- Equation Mode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The Electronic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6, 53-60.
- Hu, L.-T., & Bentler, P. M. (1995). Evaluating model fit.
- Huesmann, L. R., & Kirwil, L. (2007). Why observing violence increases the risk of violent behavior in the observ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dsoe, T., Solli, E., & Cosmovici, E. M. (2008). Social psychological processes in family and school: More evidence on their relative etiological significance for bullying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4(5), 460-474.
- Jain, S., & Cohen, A. K. (2013). Behavioral Adaptation Among Youth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A Longitudinal Multidisciplinary Study of Family, Peer and Neighborhood-Level Protective Factors. *Prevention Science*, 14(6), 606-617.
- Kärnä, A., Salmivalli, C., Poskiparta, E., & Voeten, M.,J,M. (2008). Do bystanders influence the frequency of bullying in a classroom?, The XIth EARA conference, Turin, Italy.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juvenile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Crime and justice*, 7, 29-149.
- Loeber, R., Burke, J. D., & Pardini, D. A. (2009). Development and etiology of disruptive and delinquent behavio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5, 291-310.
- Mann, M. J., Kristjansson, A. L., Sigfusdottir, I. D., & Smith, M. L. (2015). The role of community, family, peer, and school factors in group bullying: implications for school-based intervention. *The Journal of school health*,

85(7), 477-486.

- Marini, Z. A., Dane, A. V., Bosacki, S. L., & Ylc-Cura. (2006). Direct and Indirect Bully-Victims: Differential Psychosocia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Involved in Bullying and Victimization. *Aggressive Behavior*, 32(6), 551-569.
- Matsunaga,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2(4), 260-293.
- Mrug, S., Loosier, P. S., & Windle, M. (2008). Violence exposure across multiple contexts: Individual and joint effects on adjustm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8(1), 70-84.
- Mrug, S., Madan, A., & Windle, M. (2016). Emotional desensitization to violence contributes to adolescents' violent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 75-86.
- Mrug, S., Madan, A., Cook, E. W., & Wright, R. A. (2015). Emotional and physiological desensitization to real-life and movie viol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 1092-1108.
- Murphy, T. P., Laible, D., & Augustine, M. (2017). The influenc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on bullying.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 1388-1397.
- Nixon, C. L., Linkie, C. A., Coleman, P. K., & Fitch, C. (2011). Peer relational victimization and somatic complaint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9(3), 294-299.
- Pozzoli, T., & Gini, G. (2010). Active defending and passive bystanding behavior in bullying: The rol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peer pressur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 815-827.
- Pozzoli, T., Gini, G., & Vieno, A. (2012). The role of individual correlates and class norms in defending and passive bystanding behavior in bullying: a multilevel analysis. *Child development*, 83(6), 1917-1931.

- Pryce, S., & Frederickson, N. (2013). Bullying behaviour, intentions and classroom ecology. *Learning Environments Research*, 16, 183-199.
- Raskauskas, J. L., Gregory, J., Harvey, S. T., Rifshana, F., & Evans, I. M. (2010). Bullying among primary school children in New Zealand: Relationships with prosocial behaviour and classroom climate. *Educational Research*, 52(1), 1-13.
- Rey Alamillo, R. D., Elipe Muñoz, P., & Ortega Ruiz, R. (2012). Bullying and cyberbullying: Overlapping and predictive value of the co-occurrence. *Psicothema*, 24(4), 608-613.
- Rigby K. (1999). Peer victimisation at school and the health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Pt 1), 95-104.
- Ross, D. M. (1996). Childhood bullying and teasing: What school personnel, other professionals, and parents can do.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Rule, B. G., & Ferguson, T. J. (1986). The effects of media violence on attitudes, emotions, and cogni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2(3), 29-50.
- Saarento, S., Kärnä, A., Hodges, E. V., & Salmivalli, C. (2013). Student-, classroom-, and school-level risk factors for victimiz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3), 421-434.
- Salmivalli, C., & Voe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ur in bullying situ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3), 246-258.
- Schmuck, R. A., & Schmuck, P. A. (1992). Group processes in the classroom. 김경식 역(2000). *학급의 사회심리학: 협력학습 조성을 위한 기초이론과 실제*. 서울: 원미사.
- Sentse, M., Scholte, R., Salmivalli, C., & Voeten, M. (2007). Person-group dissimilarity in involvement in bullying and its relation with social statu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1009-1019.

- Sharp, S., & Smith, P. (2002). *School bullying: Insights and perspectives*. Routledge.
- Shields, A., & Cicchetti, D. (2001). Parental maltreatment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risk factors for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3), 349-36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rott, J. (2004). The development of early delinquency: Can classroom and school climates make a differenc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46(5), 553-572.
- Steiger, J. H. (2007). Understanding the limitations of global fit assessmen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5), 893-898.
- Troy, M. & Sroufe, L.A. (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he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
- Ullman, J. B., & Bentler, P. M.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ndbook of Psychology, Second Edition*, 2.
- Vaernes, R. J., Myhre, G. & Aash (1991).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psychological factors and immune levels among military aviators. *Work and Stress*, 5, 5-16.
- Vanderbilt, D., & Augustyn, M. (2010). The effects of bullying.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20(7), 315-320.
- Van Griethuijsen, R. A., van Eijck, M. W., Haste, H., Den Brok, P. J., Skinner, N. C., Mansour, N., Gencer, A. S., & BouJaoude, S. (2015). Global patterns in students' views of science and interest in science.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45, 581-603.

- Voorhis, P. V., Cullen, F. T., Mathers, R. A., & Garner, C. C. (1988). The impact of family structure and quality on delinquency: A comparative assessment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factors. *Criminology*, 26(2), 235-261.
- Wang, J., Iannotti, R. J., & Nansel, T. R. (2009). School bullying among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Physical, verbal, relational, and cybe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4), 368-375.
- Wang, M. T., & Degol, J. L. (2016). School climate: A review of the construct, measurement, and impact on student outcom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8(2), 315-352.

The Effect of Family Function and Classroom Climat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Violence Offending: Mediating Effect of Status Offense and Desensitization to Violence

San UI Park* · Soo Jung Lee**

To understand the socio-environmental causes of school violence, an explanation of how environmental factors lead to school violence is necessary. The present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athways through which family functioning and classroom climate influence school violence offending through status offenses and desensitization to viol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Violence Assessment Inventory, 2,473 samples were collected, and 2,102 samples were used in the analysis after excluding missing data.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d bootstrapping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negative family functioning and classroom climate increase status offenses, and desensitization to violence increased offending of school violence. However, family functioning, classroom climate, and status offenses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school violence offending, and only desensitization to violence had a direct effect on school violence offend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s to prevent school violence should be directed at increasing sensitivity to violence.

❖ Key words: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offending, School Violence Assessment Inventory, family functioning, classroom climate, status offense, desensitization to violence, path analysis

* Master's student, Department of Crimin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Crimin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